

## 국제경쟁력강화의 해로

韓國核燃料株式會社

지난해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한 전원자력산업계가 각종 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관련주민의 반대시위 등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쳤으며 그 여파는 올해에도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반핵집단들이 규합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자력산업시설의 건설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더우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주변에 원자력산업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는 이른바 NIMBY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신규생산시설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선진각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앞세워 농산물까지도 포함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무차별로 시장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는 우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핵연료도 국내시장에서조차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늘날 세계사적 조류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급변, 발전하고 있어 어느 국가나 기업을 막론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지 못하면 발전과 성장은 차치하고라도 생존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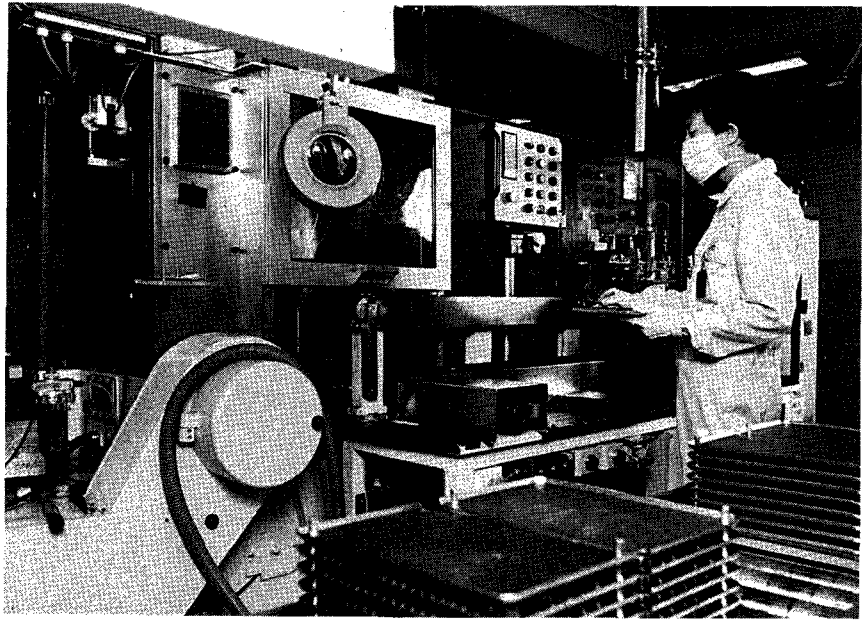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이러한 심각한 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 회사가 발전,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 위해 창립10년을 맞는 올해 우리 회사의 경영방침을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곧 핵연료의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의 경쟁력강화를 뜻하며 품질경쟁력은 연구개발결과 등을 끊임없이 제품에 구현시키는 노력을 통한 품질의 향상으로 그리고 가격경쟁력은 모든 원가요소의 철저한 관리에 의한 생산성향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방침의 정신 아래 올해 우리 회사의 주요경영목표로 설정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다. 올해의 목표는 집합체 384다발을 생산하여 7개 호기교체 영역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생산수율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생산시설의 확장이다. 이 목표는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 연동하여 핵연료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의 신, 증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의 목표는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건물건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며 상세설계와 인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것이다.



셋째, 우리 회사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술개발능력강화이다. 이는 핵연료설계 및 제조에 있어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여 핵연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기술자립을 위한 것으로서 올해는 연구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설계기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광 3, 4호기 초기노심핵연료제조기술자립은 계속사업으로서 누계공정률 4.3%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경영효율제고이다. 이는 설비이용률의 향상과 공정개선 그리고 종합경영정보관리체계 개발 등을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몇개의 병목공정에 대해서는 용량증설을 조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으로 「이태올로지」시대는 끝나고 총소리 없는 「경제전쟁」, 「무력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선진국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사리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준비도 하지 못한채 이러한 조류에 휩쓸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의식혁신과

생산성혁신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 업무개선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바로 이러한 의식혁신과 생산성혁신을 통한 고품질, 저원가의 핵연료를 생산하는데 있으므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일지라도 「과연 지금의 업무처리방법이 품질과 원가면에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최선의 것인가」라는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올해에는 특히 생산성혁신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원가부문별 생산성평가기준을 조속히 정립하여 엄격한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

우리 회사는 이제 역사적인 창립10주년의 새해 아침을 맞아 구각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할 대전환점에서 있다. 우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핵연료국산화사업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기술상, 경영상으로 아직 취약한 점이 많아 우리 임직원 모두는 국가적 소명의식과 개척정신에 뿌리를 둔 의식구조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